

## Active X 란?

-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능 확장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
- 재사용 가능한 객체지향적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개발에 사용되는 기술.
- 대부분의 액티브X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플러그인을 만드는 데 사용.

## 국내 웹에 ActiveX가 정착되게 된 이유 및 배경

1990년대 후반 Netspace사의 NetscapeNavigator와 Microsoft사의 InternetExplorer의 사용자 확보 경쟁으로 인해 브라우저 전쟁이 시작되었다. 두 회사는 서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W3C의 규정을 무시하고 기능 구현을 위한 비표준 기술을 확산시켰고 그 결과 Active-X, Plug-in, javascript 등 동적기술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 후 Microsoft가 Windows 98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한 후 부터 Microsoft의 독점 시대가 시작되어 이 때부터 웹사이트 개설이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정부, 은행, 기업들은 인터넷세상이라는 영역에 발을 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인터넷 결제 시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랐던 한국은 결국 정부 및 금융권까지 웹 브라우저가 자체 지원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128비트의 암호화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Microsoft의 기술인 ActiveX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었던 만큼 처음부터 골칫덩이는 아니었으나 사용자들이 습관적으로 ActiveX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문제가 발생 되기 시작했다. 또한 악성코드를 내포한 ActiveX 까지 함께 설치되면서 보안상태는 더 취약해졌고 ActiveX 설치 중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상태를 낮음이나 최소로 설정하라는 안내까지 나와 해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셈이 되어 ActiveX는 보안에 취약한 골칫덩이로 전락하게 되었다.

## 웹 표준과 웹 접근성

### 웹 표준(Web Standards) : 웹을 구현하는데 있어 표준으로 사용되는 지침과 기술 방식

- World Wide Web의 측면을 서술하고 정의하는 공식 표준이나 다른 기술 규격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 보통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같은 웹 페이지라면 어느 브라우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웹 페이지가 똑같이 보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
- 다양한 접속환경을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표준(GlobalStandard)에 따라 웹을 개발하는 것.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

-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웹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조직)의 정의에 의하면 웹 표준성은 접근성, 사생활 보호, 보안, 국제화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 이 중 접근성을 흔히 '웹 접근성'이라고 하고 웹 표준성과 함께 많이 언급되는 개념으로 인식.

\*\* 웹 접근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선의 방법은? -> 웹 표준을 준수하는 것.

## 국내외 웹 표준과 웹 접근성의 현 상황

국내 : 웹 표준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분위기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 접근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저조한 상황.

### 국내 정보 접근성의 주요 문제

**웹 호환성 문제** : 많은 웹사이트가 웹 표준을 어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IE)에서만 작동되는 비표준 기술을 남용 파이어폭스, 크롬 등 다른 웹 브라우저를 비롯해, 윈도우 모바일을 탑재한 기기를 제외한 스마트폰(아이폰, 안드로이드 등)과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컴퓨터 등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한다.

**웹 정보 전달 형태** :과잉 개인정보 및 기능 요구, 스크립트의 무분별한 사용, 고사양 위주, 비표준에 따른 웹페이지 가공(IE 종속적인 기능), 과도한 플러그인 기능의 사용(Active X)등의 문제를 말한다.

**국외** : 해외에서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웹 표준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정보 접근이 제약 받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 : 웹사이트는 HTML 표준을 따르며, 모든 웹 브라우저에 작동할 수 있게 신경쓰고 있다.

ex) 미국의 와코비아 은행은 단 하나의 웹페이지로 모든 기기에서 온라인 बैं킹을 지원.

**일본** : 웹 개발자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 '이클립스 aDesigner'는 시각장애인인 웹페이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 콘텐츠에 도달하는 시간을 색의 밝기로 표현하거나, 저 시력자, 색맹, 백내장 등의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는 화면을 제공한다.

ex) 돗토리현 정부 웹사이트의 경우 접근성 신고 아이콘을 두어 접근성 문제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 해외기업

**IBM** : 장애인들이 스스로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화면낭독기를 개발, 오픈 소스화 하였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피드백을 취합했다. 취합된 피드백을 바탕으로 소셜 웹 접근성 프로젝트를 진행.

ex) 웹 접근성 시각화 도구, 다국어를 지원하는 서버측 음성 엔진(TTS), 음성 공유서비스(Spoken Web)를 개발.

**Adobe** : 장애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사 제품(Acrobat, Flash, Flex)에 다양한 접근성 관련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ex) PDF와 PDF 제작 프로그램인 Acrobat, 동적 콘텐츠인 Flash, Flex, AIR 등에서 접근성 관련 기능을 제공.

## 위 내용을 조사하며 느낀 점

Active X의 불편함과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Active X가 골칫덩이가 되었는지 과제를 통해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내 웹 표준 미 준수의 현실을 통해 사용자 중심이 아닌 기업, 정부 중심의 비효율적이고 무겁기만 한 기준과 윤리식과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현실이 다시 한 번 답답하게 느껴진다. 위의 두 내용 모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시급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행 방식과 다른 어떤 대안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행태를 적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 된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말살해 왔던 서비스 제공자의 비도덕적이고 안일한 행위를 통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사용자에게 돌아왔다. 사용자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말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상도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변화된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의 불편함과 불안에 취약한 국가라는 인식이 하루 빨리 해소 되었으면 한다. 편리하고 호환성이 뛰어나고 가볍고 단순한 건강한 웹 사이트와 안전한 보안시스템을 통해 일반 사용자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장애인들역시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인터넷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